

## 진행 및 재발위암환자에서 FOLFOX-6(Oxaliplatin, 5-FU, Leucovorin)

### 복합화학요법의 치료효과

김도연<sup>\*</sup>, 김지현, 이세훈, 김태유, 허대석, 방영주, 김노경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

목적: Oxaliplatin은 platinum 계열 항암제로 진행성 대장 및 직장암에 5-FU/LV와 병합하여 사용시 28-65%의 반응율을 보인다. 그러나 진행성 위암에서 oxaliplatin의 효과는 증명되어 있지 않고 일부 보고에서 50%의 반응율을 보고하였으나 확립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저자들은 과거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진행 및 재발위암환자에서 oxaliplatin, 5-FU, Leucovorin을 병용투여하여 치료효과와 독성을 평가하였다.

방법: 2000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5-FU나 thymidated synthase inhibitor가 포함된 약물요법을 받고 재발된 혹은 진행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Oxaliplatin은 D1에 85 mg/m<sup>2</sup>을 2시간 정주하였고, 5-FU는 400mg/m<sup>2</sup> bolus에 이어 5-FU 3 g/m<sup>2</sup>와 LV 150 mg/m<sup>2</sup>을 46시간 지속정맥주입하였고 치료에 따른 독성이나 병의 진행이 관찰될 때까지 2주 간격으로 시행하였다.

성적: 대상환자는 총 26명으로 남자가 23명이었고 여자가 3명이었다. 진단당시의 중앙연령은 52세(26-71)였고 전신수행상태는 grade 1이 7명, grade 2가 18명, grade 3가 1명이었다. 침범 장기는 간이 12례, 복막이 10례, 림프절 13례, 폐 1례, 흉막 1례, 뼈 2례였다. 항암화학요법의 투여횟수는 평균 4(1-12)였고 26명 중 계측 명확한 병변이 있었던 13명에서 완전관해는 없었으며 부분관해 15%(2/13), 불변 23%(3/13), 진행 62%(8/13)이었고 전체 26명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9.6주, 중앙진행기간은 15.8주였다. 총 109회의 항암요법이 시행되었는데 주기당 3도의 백혈구 감소증, 혈소판 감소증, 신경학적 독성이 각각 1%였고 이외에 다른 부작용은 경미하였다.

결론: 진행 및 재발위암환자에서 Oxaliplatin, 5-FU, Leucovorin의 복합화학요법은 독성은 수용가능하였으나 과거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. 그러나 대상환자의 수가 적고 계측 가능한 병변을 가진 환자만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장기 추적관찰과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

## 진행성 위암환자에서의 5-FU, Etoposide, Cisplatin(FEP) 3제 병용 항암요법

연세 암센터<sup>1</sup>, 암 연구소<sup>2</sup>, 연세 의대 내과학 교실<sup>3</sup>, 암전이 연구센터<sup>4</sup>

손주혁<sup>1,2,3,\*</sup>, 신현준<sup>1,2,3</sup>, 정희철<sup>1,2,3,4</sup>, 라선영<sup>1,2,3,4</sup>, 유내준<sup>1,2,3</sup>, 김주향<sup>1,2,3</sup>, 노재경<sup>1,2,3,4</sup>, 김병수<sup>1,2,3,4</sup>, 정현철<sup>1,2,3,4</sup>

배경: 진행성 위암은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인 수술이 불가능해 다양한 항암요법이 시도되고 있는 질병으로, 5-FU, Etoposide, Cisplatin, Adriamycin, Mitomycin C등의 항암약제가 단독으로 혹은 병용요법으로 치료성적이 보고되어왔다. 하지만 다른 병용요법들에 비해 5-FU, Etoposide, Cisplatin의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보고가 부족하였다.

목적: 근치적 수술 후 재발한 환자들과 보존적 수술후의 환자들에서 FEP 복합항암요법의 치료효과, 독성 그리고 생존율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하고자한다.

연구 재료 및 방법: 199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1년 동안, 연세대학교 암센터에서 1)근치적 수술과 보조 항암치료 후 재발한 53예 2)근치적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 없이 지내다 재발한 9예 3)보존적 수술한 26예 등 총 89예를 대상으로 각 환자군의 특징, 치료 효과, 독성, 예후인자, 전체 및 무진행 생존기간을 조사하였다.

결과: 1) 남자 61예, 여자 28예로 평균나이 52세였으며 ECOG 0-1이 80예 2가 9예였다.

2)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가 73예였고 signet ring cell Ca가 14예였으며, 처음의 재발위치는 Peritoneal 25, Hematogenous 20, Lymph node 11, Local recur 7예였다.

3)측정가능한 종괴를 갖는 25예 중 CR 2, PR 3 예로 반응율은 20%였다

4)진체환자의 중간 생존기간은 8개월, 무진행 중간 생존기간은 4개월이었다.

5) Grade 3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빈혈 4예(4.2%), 백혈구 감소증 8예(8.5%), 혈소판 감소증 1예(1.1%)였다.

6)예후인자로서 항암치료 유무, 재발한군과 보존적 수술한군, 조직학적 구분, 나이, 성별, 재발위치, 반응여부 등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보존적 수술한 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이 6개월로 다른 군에 비해(2-3개월)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( P value = 0.07 )